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상 1 & 2, 세션 1, 사무엘상 1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사무엘상 1.1-2.11, 더 이상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처음 11절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꽤 유명한 노래는 2장에 나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섹션 불모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부분의 큰 개념은 비길 데 없는 왕이신 주님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노래에서 그분이 바로 그 분임을 확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길 데 없는 왕이신 여호와 야훼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입증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라이벌 아내 브니나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나를 의롭게 하시고, 한나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어 의롭게 하십니다. 이야기는 단지 개인인 한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노래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나의 경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사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왕을 통해 그의 백성도 의롭게 할 것이지만 한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게 될 내용에 대한 개요입니다. 핵심 주제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유능한 지도력을 제공하는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이며, 주님은 참으로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시는 비길 데 없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연대순으로나 역사적으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이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전 선지자들에 사사가 있고, 글에는 룿이 있고 거기에도 없지만 룿이 그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문제로 끝난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였지만 왕만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왕권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며, 제 생각에는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왕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자면, 이스라엘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원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아니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토라에 대한 이해를 지도할 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사사기에서 우리는 매우 실패한 리더십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부터 시작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 그런 리더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일종의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해당 섹션에 도달하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문제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성경에 이어 룯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게도 룯기는 실제로 다윗의 조상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로 끝나고 다윗이 언급되므로 룯기는 다윗을 예상하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국 그도 실패자가 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이 사사기와 룯기의 후속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사사기가 제기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룯기에서 예상했던 인물을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1984년 버전인 NIV를 읽을 예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엘가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예루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증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솥의 현손이니라, 에브라임 사람.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배경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마다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것을 공부했을 때 나는 이것이 아마도 표준적인 소개, 즉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별한 스타일의 소개에서 발견한 것은, 빈칸 채우기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빈칸 채우기였습니다. 4개의 구절에만 나타나며, 함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혈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는 삼손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도 저는 이 구절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 큰 문학적 단위가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닫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섹션들 사이에는 몇 가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경건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자,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면 삼손은 주님께서서 현장에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말하자면 기적적인 출산을 통해 불임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었고, 삼손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에는 그녀가 삼손에게 인생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삼손은 실패한 지도자이다. 나는 히브리서 11장이 그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그의 삶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패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지만 그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지만 그것을 완성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완료할 것이다.

그는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둘 것이며,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을 것이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사무엘의 은인이고, 다윗과 그의 이름 없는 어머니는 한나의 은인인 것과 같습니다. 첫째,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냅니다. 그는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결국, 북쪽으로 이주하던 단 족속에게 그의 모든 종교 도구를 빼앗기고, 그들은 북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고 그의 뜻에 어긋나는 변절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미가의 어머니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역할을 하고, 미가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실패한 지도자들이 있고, 한나와 사무엘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과 함께 실패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사울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그 장에 도달하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서론, 사용된 패턴만 보면 저자는 이 이야기를 사사기 이전에 나온 내용과 연관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상관관계의 중요성은 제가 방금 언급한 것입니다.

자, 계속합시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하갈이나 레아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나 라헬과 같은 경쟁 아내가

있다는 가부장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갈등을 낳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일부다처제를 정죄하는 내용이 실제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첫 번째 결혼 이야기인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이 함축적으로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패턴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그 성읍에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실로는 당시 중앙 성소가 있던 곳이고, 거기에 성막과 궤와 저자가 이것을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전혀 그것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기간을 찾는 것 같지만 2장으로 들어가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가나가 제사하는 날에는 그 고기를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으니 그가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태를 달으셨음이다. 주님께서 왜 그녀의 태를 달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차적인 원인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달으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이유의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이해했으며 우리만큼 이차적인 원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태를 단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녀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단으셨으므로 그의 적수는 그를 괴롭히려고 계속 그를 노엽게 했습니다.

나는 한나가 엘가나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를 갖고 싶어 브닌나를 선택했고 브닌나도 한나처럼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라이벌이 그를 노엽게 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식사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우울해요. 우리는 2장의 추수감사절 노래에서 그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그녀에게 한나야, 왜 우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먹지 않니? 왜 낙심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아들 열 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 중 하나는 Hannah의 삶에 있는 남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임 여성으로서 그녀가 느끼는 고통과 억압의 고통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단순히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아들 열 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나는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한나였다면 돌아와서 "왜 페니나를 데려갔나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아들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에게도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나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여성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마치 그들이 대체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을 던지는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사사기 중반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변하고, 판사들의 에필로그에서 여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성들은 납치됩니다.

레위인의 첩인 한 여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억압받는 여자로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그녀가 다른 여자에게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흘러나온 주제입니다. 잠시 룯을 제외하고 사무엘상이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룯기를 막간으로 생각하고, 사무엘상이 사사기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제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늙었으니 우리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는 거의 장님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일종의 수동적인 인물이 될 것이며, 그는 자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자세는 그를 수동적인 인물의 역할로 캐스팅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크게 울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당신께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여, 당신 종의 비참함만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주목하십시오.

비참함, 고뇌, 억압에 대한 다양한 용어. 당신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기억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기억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해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잊혀진 것 같지만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을 나실인이라고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는 나실인이 한 일이므로 그가
 정말 나실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것처럼
 사무엘이 삼손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긴 머리를
 가진 주님의 종입니다.

삼손은 결국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Hannah는 처음에 집 주위를
 뛰어다니는 소년을 반드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이 억압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을까? 그녀가 끔찍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어쩌면 그녀의 부모가 끔찍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소경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결정한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궁 안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일찍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Hannah를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녀는 억압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서는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성소에서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면도하지 않은 머리카락이 그 표시가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는 그 여인의 입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녀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는 이 여자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취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Hannah의 삶에 있는 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겠느냐? 와인을 없애십시오. 그래서 의롭게, 독선적으로 그녀를 비난합니다.

이 단어들은 두 번째 읽을 때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첫 번째 읽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많은 감정이 생깁니다. 특히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중 일부에 너무 익숙해서 처음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원래 청중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읽기는 때때로 매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식스센스(Sixth Sense)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봤을 때, 와, 그 아이가 미쳤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쳤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그 아이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영화를 두 번째로 볼 때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영화를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 영화에서 놓쳤던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그가 식당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읽으면 이 단어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흡니와 피네아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에게서 주님의 음식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희생을 위한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성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엘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여자를 술고래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Hannah는 재빨리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군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불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민이 많은 여자다. 나는 와인이나 맥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나는 큰 번민과 슬픔으로 인해 이곳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가 두 개 더 있는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악한 여자'라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그녀는 사악함이나 악함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벨리알(bel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벨리알은 여러분이 가끔 보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 이르게 되면 벨리아르(Beliar), 벨리알(Belial)이라는 명칭으로 마귀를 가리키는 명칭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벨리알은 단순히 무가치한, 일종의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를 쓸모없는 사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여자는 엘리가 자기를 술고래라고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2장에서도 엘리의 아들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화자는 그 단어로 그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쓸모없고 악한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점이 보이나요? 엘리는 그녀를 이런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2장에 이르면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서 무엇인가 먹었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주님 앞에 자신의 영을 쏟아 부은 다음 엘리로부터 일종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엘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종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얼굴이 풀려 있지 않고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된 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성경적 원리를 매우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 구절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신다는 것이지만, 하위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약성서에서 이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주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기도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탄식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꺼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적절해요.

자고 있는 듯 일어나달라고 항의한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만, 그렇게 하면 매우 자유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베드로가 당신의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기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만 때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계신지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뭔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올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태도를 바꾼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그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기도한 대로 그분은 그 아들을 그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임신했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묻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할 일은 특정한 단어처럼 들리는 이름을 선택했으며 이 경우 그녀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아이, 샬알, 그녀가 그를 구했기 때문에 그 단어에 있는 글자 중 일부는 사무엘의 이름인 스무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무엘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녀는 내가 그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경우에 사무엘에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사무엘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녀가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면 내가 그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거기 항상 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젖을 떼고 그가 그곳에 도착하면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가나의 반응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당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적절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녀에게나 그에게 약속하신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자녀,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며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 자기 아들을 먹였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녀는 어린 아이와 세 살 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소를 잡은 후에 그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오니 엘리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 아이에게 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여호와께 맡기노니 그 여자는 자기의 서원 곧 여호와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것이 엘가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몇 구절 동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여기로 데려오나요? 일부 본문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경배했다고 읽는데, 이것이 더 나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이미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흡니아와 비느하스와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 의아해하는 이야기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식 이야기, 영감받은 성구로서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야기의 한 요소일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읽을 때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주 작고 정의로웠을 때에도 맨 처음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전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매우 놀라운 구절의 두 번째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여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하고 있습니까? 그녀에게 뿔이 있나요? 글썄, 당신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유법이야.

그녀는 자신을 경쟁자와 싸울 때 뿔을 사용하는 동물인 들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녀가 브닌나와의 갈등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녀의 노래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군사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라이벌 아내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정당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녀를 비판하고 압제하는 자와 맞서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뿔을 높이 드셨으므로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경쟁자와 싸워 이기고 그 뿔이 높이 들리는 들소에 비유하였느니라. 그녀는 주님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자랑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군사적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노래의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 바알 신, 다산의 신이자 폭풍의 신이었던 가나안의 신 바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리기 위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이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영역에서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서는 아이들과 농작물이 전부입니다. 농경 사회인데 농작물이 잘나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 합니다.

농업 환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특별한 역사적 맥락에서 많은 아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여신들과 성관계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프랑스인들이 발굴한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리트(Ugarit) 유적지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판을 해독하고 번역하고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우리는 현재 세계 이 지역의 바알 숭배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신들의 만신전의 일부였으며, 가나안 체계에는 높은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높은 신이 아닙니다.

높은 신은 티, EL이라고 불리며 히브리어와 심지어 우가리트에서도 신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이는 이 높은 신의 이름 또는 칭호입니다. 그는 여기 가나안 신전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엘의 궁극적인 권위 아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은 이러한 신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알의 경쟁자인 주요 신이 두 명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얌입니다.

얌(Yam)은 바다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은 바다를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단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범람시키고 점령하고 말하자면 혼란을 일으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다를 물리쳐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성서에서 이러한 이미지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창조와 출애굽과 함께 바다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훼가 가나안 종교에서 진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이 구절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 야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는 바다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얌을 물리칩니다.

그는 바다를 이겼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라이벌인 Mot도 있습니다. 못은 죽음의 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은 실제로 모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못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지하 세계, 죽은 자의 세계, 그가 다스리는 못의 영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바알은 부활합니다.

그는 죽어갔다가 부활하는 신입니다. 그는 못을 물리친 아낫이라는 여신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이 신들은 오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은 모두 분쇄되어 바람에 던져졌지만, 7년 후, 보라,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바알과 못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엘은 판결을 내리고 바알이 승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투에서 분할 결정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신화는 모두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자연에 관한 것입니다. 신과 자연은 하나이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자연 위에 계신다. 그분은 자연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그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상에서는 자연과 신이 모두 하나로
연여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계절의 순환과 상황을 반영합니다. 바알이 통제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비는 적당한 계절에 올 것이다.

우리도 항상 비가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이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이 자라며,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순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끝나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 뿐입니다.

글쎄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바알이 패배하고 못이 점령당한 때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가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없다.

그래서 신화는 그들이 자연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일종의 반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패배하여 저승과 저승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다시 살리려고 애통해 했을 것입니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신 엘(EI)조차도 바알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굶은 베를 입고 날카로운 돌을 들고 자기 몸을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애도 의식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의 애도 의식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이교도적인 일이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비를 내리게 하려고
뛰어다니다가 자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 일종의
불운이군요.

그들이 바알 숭배를 북쪽 왕국의 공식 종교로 만들기로 결정한 순간, 그는 가서 죽습니다. 그는 가서 그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의 일부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는 천둥소리를 낸다. 그는 천둥과 함께 온다. 천둥은 그의 거룩한 음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핵심 신입니다. 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신 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성자들이라 부른다.

그러나 한 본문에서 아낫은 바알이 신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헐자, 온 마을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개입했고, 우리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우리가 그를 위해 바알의 전쟁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싸움을 싸우게 하라.

이제 그것은 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들에게 예루브 바알(Yeruv Baal)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알이 그와 함께 싸우게 하라.

그래서 그 시점부터 기드온은 바알에게 도전하는 예루브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불임 여성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의지하고 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에게 야훼를 주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를 숭배할 수 있지만 바알도 데려와 그를 숭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할권은 다산과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숭배할 것 같아요. 나는 야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라고 불리며, 주님은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소로 갔다.

그녀는 큰 비참함과 억압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신을 위해 개입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세계관의 반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으며 여기서 그녀는 주로 도덕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구별됨, 독특함, 유일무이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는 독특해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의 문화적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다. 바알, 바알과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자, 락, 그것은 좀 혼란스러운 단어입니다.

왜 그녀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집어서 누군가에게 던질 돌멩이요? 무슨 뜻인가요? 글썄, 바위에 사용되는 그 특별한 단어인 수르(sur)는 실제로 바위 절벽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반석이라 부르게 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뛰어다닐 때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가끔 올라와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위 절벽을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로 말하며, 당신의 적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어로 rock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그녀는 실제로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바위절벽이 무서워요.

나는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지만 보호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억압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말하며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단지 단수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 2인칭 표현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녀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입으로 그런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녀는 브닌나를 옆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아마도 그녀에게 말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야훼의 일반적인 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분은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정의롭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지성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므로 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 행위의 무게가 측정됩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여도 넘어진 자는 강함으로 무장하느니라.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시 이 군사적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반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사의 활, 음, 그 용사 중 하나가 브닌나였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바로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전을 가져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번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압제를 당합니다. 한나는 그랬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반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Hannah를 위해 그 일을 해냈고 그녀는 집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던 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일곱 아이를 낳았고,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는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한나와 브닌나가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는 일곱 자녀를 두지 않았지만 강조하기 위해 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는 5개를 더 얻을 예정인데 7개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완벽함이나 완전함의 숫자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이는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 완전함을 강조하고 싶을 때 7이나 7의 배수를 사용해서 불임이었던 여인이 일곱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엄마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주로 자신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6절에서 전환하여 히브리어로 분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임을 시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합니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는 무덤으로 내려오시고 NIV는 그것을 들어올린다고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이 그러하듯이 저는 그렇게 번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실제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고 그는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음을 가져오고 살리시는 분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바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죽음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에 맞서 싸우며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즉, 문맥상으로 이해하면 바알에 대한 논쟁이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무덤으로 데려가셨지만 그분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녀는 아마 당신이 문맥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그 억압이 너무 심해서 그녀는 마치 무덤에서 한 발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무덤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키우셨고, 그녀에게 아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가난과 부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일으키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방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보좌를 기업으로 얻게 하심은
 땅의 기초가 여호와와의 것임이로다 그분은 그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높고 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때로 당신은 주님, 당신이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결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데려가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왕자가 있는 자리.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일어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억압을 받고 있는 한나처럼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면 감사하라. 그것은 너희가 내 편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정당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입증될 것입니다. 네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높고 강한 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요 그래서 Hannah는 이것을 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미래에 행하실 일과
 궁극적으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의 성도들, 그의
 백성, 그의 하시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둠 속에서 잠잠해질 것이다.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녀가 바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려고 천둥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대판사로 오실 때 그분이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는 바알과 같은 용어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나에게는 아니, 공의로운 왕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다산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그분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며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뿔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적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한나가 주님께서 자신을 개인으로서 행하신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그녀와 매우 흡사한 억압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에서 이에 대해 읽었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사무엘에게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왕이 없으니 이것은 나중에 쓰여진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나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중에 쓴 것입니다. 원래 기도에 뭔가를 추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왕이 있고 왕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그냥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왕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리더십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 마지막 진술을 더 많은 기도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 전체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나의 감사의 노래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Mary는 실제로 Hannah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양하는 것이며 그분은 메시아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Hannah는 그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내 생각에 Mary는 Hannah의 노래에 익숙했고 Hannah의 노래를 따라 자신의 노래를 패턴화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에는 주님께서 여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Hannah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의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천둥소리를 내며 오실 것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부분에 가는데, 끝에서 두 장 정도 떨어진 곳에 다윗이 거기서 기도한 것과 한나가 여기서 기도한 것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을 여러 번 구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천둥을 치시고 그를 적들에게서 구출하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모티브이며 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는 이 책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 전개의 중단점이다.

장 구분이 당연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11절 앞부분보다는 여기에 배치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휴식이 있으며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 사이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뒤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앞뒤로, 앞뒤로, 나머지 2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3장과 4장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에서는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사무엘상 1.1-2.11, 더 이상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